



도전에 응전해야 산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고, 부처님은 '고통의 바다(苦海)의 고통'으로 나타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수많은 문제를 어깨에, 등에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 문제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와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더 많이 맛보게 되어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이다.

나는 누구나 부딪히는 이 문제를 도전이라고 부른다. 원래 도전이라는 말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Toynbee)가 사용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에서 인류 문명(civilization)은 내부와 외부의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하면 멸망했다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공감을 얻어서 역사발전의 법칙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는 문명의 흥망성쇠의 중요 변수로서의 도전을 확장 해석해서 개인과 조직, 국가와 민족의

역사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바닷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도전들을 적절히 응전하지 못한다면 좌절과 실패, 곤경과 패망을 맞이할 수 있다.

성격과 종류, 크기와 영향력이 각기 다른 문제(도전)들을 시간과 장소, 방법과 여건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삶은 정체되고 후퇴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문제와 도전을 극복하면서 가치와 현상을 보존(保)하고 지키는(守) 보수도 쉬운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다.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의 사회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보수 정당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도, 조직도, 사회도, 정당도, 국가도, 민족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전통과 가치, 규범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모든 조직들도 보수는 질서와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와 정신, 규범을 무조

건 보호하고 지키는 보수 하나로는 역사 발전이 더디거나 뒤쳐질 수 있다. 좀 더 나은 상태, 좀 더 나은 의미와 가치, 좀 더 나은 관계와 제도, 삶을 위하여 부족한 점, 불합리한 점, 잘못된 점 등을 발견하고 고치고자 앞으로 발걸음(步)을 나아가는(進) 진보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들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공존하고 상호의존적이며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들은 보수도 해야 하고 진보도 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진보적이었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키는 보수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다. 진보는 보수에서 나와서 다시 보수로 되돌아간다.

보수의 비중이 좀 더 높거나, 진보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사람도 100% 보수, 100% 진보는 없다. 누구나 보수적인 성격과 진보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오가면서 이어가는 삶에서, 문제와 도전이 닥쳐왔을 때, 바로 적절히 지혜롭게 처리하는 응전을 못했을 때, 문제는 악화되고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응전, 해결, 대처를 미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지런 하라, 일찍 일어나라는 교훈, 인생 좌우명이 많다. 유명한 새마을운동도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내세웠다. 나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 좌우명의 하나로 삼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흡한 것을 절감하고 있다.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칼럼

기고

화재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시작된다

주영철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령



매년 화재예방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방시설 점검 및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조그마한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대형화재가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화재 발생건수 2,472건 중 부주의(안전불감증)로 인한 화재 건수가 1,384건(55.9%)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주의(안전불감증)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궁이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자리를 떠서 화재발생, 용접할 때 주위 가연물 존재로 용접불티에 의해 화재발생, 화목보일러에서 타고남은 재를 마른풀 위에 버려서 화재발생, 콘센트 플러그 주위 먼지로 인한 화재,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 등 조그마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화재가 부주의(안전불감증)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쿠방 창고화재도 콘센트 플러그에 쌓인 먼지에 의해 조그마한 불꽃이 큰 화재로 이어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 보도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를 초기에 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적절하게 작동하였다면 초기에 진화될 수도 있었지만 수시 오작동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화재초기 8분 동안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만약 수시 오작동시 정상 작동하도록 수리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 주의를 더 기울인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가정과 직장에서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두기, 콘센트 주변 먼지 제거하기,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이석 금지,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및 절단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의 가연물을 치우고 소화기나 물 호스를 비치한 후 작업하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제74주년 제헌절과 국기게양

올해 7월 17일은 제74주년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며 세계 독립국 국민은 그 나라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기본상식으로 알고 철저히 자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경일마다 국기 게양을 하라는 행정지시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데 올해 제헌절을 앞두고 국기 게양과 국기 게양 교육을 철저히 하고 행정관서에서는 국기 게양대를 정비하고 태극기와 새마을기 소속기관 기를 게양하고 남은 것은 교체했으면 한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및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유 민주시민임을 자랑하며 선진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헌법전문만이라도 읽어보고 자녀와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제헌절이 되게 하자.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법인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는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70여 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 정신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뜻만민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다. 어떤 특권층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천정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헌정 73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 쿠데타에 의한 개헌,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국민은 민주 헌법을 수호하여 지켜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교도소에 수용된 수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선진국일수록 교도소가 비어 있고 간수들이 할 일이 없다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은 국민이 지켜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준법정신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라 한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법은 지켜지고 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도 더러 있었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다스리는 법원과 법에 따라 통치하는 행정부에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국법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